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12월 7일 (제 1335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본성은 바뀌지 않더라

41년 차 목회자로서 깨달은 것이 있다. 자동차 외형이 바뀌어도 엔진은 변하지 않듯, 사람의 외모는 변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죄의 습성이 있다. 그것은 마치 물컵 속의 이물질과 같아 가만히 있을 때는 잠잠히 가라앉아 있다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확 올라와 존재를 드러낸다. 본성은 불편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해 비교되는 불편한 상황이 오자 교만과 질투가 드러났다. 가롯 유다 역시 정치적 야욕이 무산되자 마음속 깊이 자리한 탐욕이 드러나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곁이 아닌 '마음'을 보신 것이다(삼상16:7).

관성의 법칙을 아는가? 하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영적 관성의 법칙도 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방식, 육체의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한다. 성령 충만을 잃으면 영적 관성에 의해 사람은 다시 옛사람의 습관과 본성으로 미끄러져 간다.

41년간 나는 정말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행동도, 말투도, 생각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나니 본성대로 말하고, 본성대로 행동하더라. 그래서 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성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새사람이 되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하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렘36:26). 성령으로 옛 성품인 본성이 깨어져야 새사람이 된다.

성령충만은 본성을 누르는 압력이다. 그 압력이 강해야 본성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압력이 약해지면 본성이 일어나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5:17).

늘 성령충만하라. 본성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4).

절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

항상 어떤 집회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 집회를 통해 주목되는 인물이 있다. 가르시아(Garcia) 집회는 마리오(Mario) 목사가 주관한 집회였지만, 우리의 시선을 끈 인물은 몬테레이(Monterrey)에서 온 오스칼(Oscar) 목사와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맘씨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멕시코(Mexico) 집회에 자주 참석하곤 했었는데, 그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뜻을 세웠다고 한다. ‘이번 가르시아 집회에 우리 가족이 목사님을 모시자!’ 그는 큰아들 오스칼 주니어(Oscar Jr.)로 목사님을 모시게 하고 자신의 차로는 우리 일행의 이동을 도왔는데, 그는 이번 집회에서 ‘생각을 바꾸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누구보다 큰 변화를 보이며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기뻐했다. 아들이 셋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

아졌다. 목사님은 두 집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강조하셨다. 국내에서 계속 강조하시던 메시지였지만, 해외에서 이토록 강도 높게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인 듯싶었다.

“한때 교계를 이끌던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돈에, 명예에, 이성에 넘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들을 봅니다. 그들이 변질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열외일 수 없습니다. 나부터도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잘나가고 있을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에 주신 능력을 잃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겸손히 따를 뿐입니다.

더 큰 꿈을 품으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시편 81편에 네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시81:10)? 두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마18:20), 합심하여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멕시코의 제자들이 나를 닮고 더 큰 꿈을 향해 기도하여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나아가 전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끄는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제자들이 준비한 목사님의 생신 파티가 열리기 전, 엠마누엘(Emmanuel) 목사 부부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다. 목사님은 1시간 가까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며 목사님의 41년 목회 노하우를 아



2025 몬테레이 집회 광경

은 아들들은 목사님이 ‘어떤 신봉감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자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둘째로는 아빠와 엄마에게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오스칼 목사에게 ‘자식 농사 아주 잘했다.’며 크게 기뻐하셨다. 멕시코 청년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둘째 아들 아브라함(Abraham)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 옥상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든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기도하는 가정이 받는 복을 느낄 수 있었다. 몬테레이에서는 오전과 저녁 집회가 이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데 여기저기서 부르니 교회는 돌보지 않고, 기도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쫓아다니더니 결국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도 문 닫고 맙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쉬지 말라는 것은 오직 기도 뿐입니다(살전 5:17). 나는 천금을 준다 해도 이 기도의 시간을 빼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집회 때는 하루 7, 8시간의 기도를 절대 지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에 있는, 내 목회 41년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

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가르치셨고, 엠마누엘 목사는 찬탄을 발하며 깊이 감사를 표했다. 감사한 것은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에서 목회하고 있는 엠마누엘 목사의 친구 후안(Juan) 목사가 내년 3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모든 중남미 목회자들을 모아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목사님을 주강사로 초청한다는 것이다.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대로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이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은택 목사



오스칼 목사 부자



성황리에 진행된 몬테레이 집회



멕시코 제자들과 함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9:2~8)



우리,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복 받아봅시다

목회 초였으니까 어언 4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백여 명의 우리 성도 모두를 학교 버스에 태우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뒤편에 있는 호텔 뷔페식당으로 갔습니다. 당시는 뷔페식당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 호텔뷔페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성도들이 주눅있었지요. 저는 그들에게 맘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슬며시 제게 그러더군요.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는 모두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교회 돈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가 잘돼야 나눠줄 것 아닙니까? 내가 지지리 공상인데 누구에게 뭘 나눠줄까?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고 온 것은 여러분의 틀을 깨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도 잘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주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럼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느껴봐야 부자가 되고 싶지요.

뿌리가 썩은 나무에 기대할 것은 없다

가난이 정상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지리 공상이나 떨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No, 이는 믿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이 무슨 죄인 것처럼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잘살아라.’, ‘부자가 돼라.’ 그러면 기복신앙이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요. 신명기 28장은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떡 반죽 그릇도 복, 심지어 우양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말쑥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겠도다”(딤후6:10)입니다. 이 말쑥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쑥이지, 가난하게 살라는 말쑥이 아닙니다. ‘Love’와 ‘Like’는 완전 다른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이 싫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몸을 팔고, 사람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돈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돈 많은 청년을 보세요. 영생과 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돈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돈

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3~24)라고 하신 것이지, 무조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평생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사로처럼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지만, 나사로처럼 평생 빌어먹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딸 구유에 몸을 누우셨고, 머리 돌 곳 도

없이 사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고후8:9).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누리다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 부자, 거부(巨富)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소떼, 양떼가 넘치게 하였고, 이삭은 당년에 백배 축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주셨으며, 요셉을 약관의 나이에 대국의 총리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따르면 물이 나옵니다. 오렌지 주스를 담으면 오렌지 주스 병이 되고, 따르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아무리 비싸고 멋진 병이라 할지라도 그건 오물병이고, 따르면 오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가문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도 생각이 썩어 있으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썩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물병에서는 절대 오렌지 주스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기대할 것이 없듯, 생각이 썩은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각이 결과니까요(렐6:19). ‘나는 부자가 되어 보리라.’, ‘나도 성공해 보리라.’, ‘나도 부자가 되어 남을 도와야지.’ 생각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생각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사과 속의 씨는 헤아릴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거든요.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로 내

운명을 만 들어가는 겁니다. 운 전해보셨습니까? 자동차가 맘대로 왼쪽 오른쪽 갑디까? 아니요, 운전자가 어디로 핸들을 트느냐에 따라 자동차는 움직일 뿐입니다. 내 운명이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으로 내 운명이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운명의 자동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부자 쪽입니까? 청렴을 가장한 가난 쪽입니까? 생각 속에는 상상력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이 상상력은 무한합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상상의 나라를 펼쳐 그 이상을 이룬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뭇별을 보며 자손을 상상하더니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야곱은 무늬 없는 양들 앞에 버드나무와 신평나무와 살구나무를 놓고 열죽이고 점 있는 양의 새끼가 나올 것을 상상하더니 상상한 대로 되었고, 거부가 되어 금의환향하였지요. 요셉은 꿈을 꾸 후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을 상상하며 고난을 견디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은 긍정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일 때 전원이 들어옵니다. ‘내 팔자야’, ‘내 주제에’, 이런 사람에게는 상상력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최고의 기업이 될 거야.’ 하는 자에게 상상력의 전원이 들어오고, 상상의 나라가 무한대로 펼쳐지고, 거기서 무한한 창조력, 창의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보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삭개오에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기지가 발휘된 것처럼, 친구를 살리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한 것처럼요.

그다음은 움직여야 합니다. 도토리 하나를 그대로 두면 평생 도토리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썩고 말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 나무가 되고, 거기서 많은 도토리를 따게 됩니다. 제가 ‘세계를 교구화하리라’는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여전히 도토리 하나 쥐고 있는 셈이었겠지만, 저는 말도 설고 물도 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반에 몇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에 몇백 명만 있었던 적도 있었고, 무산된 집회도 있었지만 꾸준히 심었더니 지금은 어딜 가나 도토리를 따서 남에게 나눠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생은 말과 생각으로 만드는 작품이다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되면 반드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로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무채색의 삶이 화려한 것으로 변화되어 인생의 작품이 멋져지고 명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고, 또 사회적으로도 덕을 쌓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물이 없는 저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주고... 당장 잘못된 생각일랑 벗어버리고 우리, 부자가 되어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멋진 인생이 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렸나니 허를 쓰지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영생을 준비하라

성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지식만을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시각은 보이는 세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인 실상을 알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한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야 영의 눈이 밝아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성도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수준 높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복음이 모두 전파된 후에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부활한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실존하는 세계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영원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의미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같은 자유가 영원히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삶이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 어두움 가운데 영원히 존재할 뿐이다.

우리 시대는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영적으로도 종말의 징조를 느낄 수 있거니와 세상도 이구동성으로 세계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문 닫을 날이 곧 도래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미 생태적으로 종말이 지났다고 증거하고, 지구의 오염도는 벌써 지구 표면의 2/3를 뒤덮었다. 세상의 증거는 종말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거두실 운명의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반드시 떠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항상 준비해야만 한다. 이 땅에서 우리를 거두실 그 날을 만반 채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경각심이란 국어사전에 ‘정신 차리고 자세히 살펴서 움직이는 마음’이라 풀이했다.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갖고 자다가 깨 때가 되었으니 기회의 열린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일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요6:39~40).

신기류 목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예수 이름은 ‘마패’와 같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매 순간 사용하지 않니?” 저는 예수 이름을 ‘아플 때만 쓰는 것’으로 여겼기에, 그 권세를 스스로 제한해온 제 모습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문제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집 안에 모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기는 내 눈앞에 나타날지어다!” 그러자 정말로, 그 토록 성가시던 모기가 제 눈앞에 딱 나타났고, 곧바로 그것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겉속에서 귤껍이 떨어져 달그락거려 몹시 불편하던 순간, 예전 같으면 자연히 빠져나오기를 기다렸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 귤껍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자 그 즉시 소리가 멎은 일. 평상시 주차장이 늘 붐비는 장소로 가는 길에, “예수 이름으로 주차 자리는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더니 도착하는 순간 빈자리가 보였던 일. 노트북이 갑자기 작동되지 않았을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 화면이 다시 켜졌던 일 등,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큰 문제나 아플 때

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일들까지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의 원인은 결국 귀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는데 왜 그런 능력이 없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란 단순히 교회만 드나드는 이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이 ‘권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즉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9).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김진실 사모

하나님의 공평하심

어느 전도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려면 하지 마라. 봉사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봉사엔 공정과 공평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함이 있어야 불만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유사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마르다는 분주히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자기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였는데, 예수님은 같이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충실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일하든 안하든 거기에 신경 쓰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얼핏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하지만 봉사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남들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은 후, 기도원 집회 기간에 맡은 일은 많았지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우리 일에만 집중했더니 기쁨과 은혜 가운데 적은 인원으로도 거뜬히 해내고, 심지어 다른 팀들도 도와줄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 없이 하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여, 금세와 내세에 축복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최성경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어느 추운 밤, 아라비아 사람이 천막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낙타가 머리를 들이밀며 말했다. “주인님, 너무 추워서…, 머리만 잠깐 넣어도 될까요?” 안쓰러운 마음에 허락하자 낙타는 조금 뒤 앞다리까지 들이밀며 “이번엔 다리가 너무 아픉니다.”라고 했고, 주인은 또 허락했다. 결국 낙타는 온몸을 천막 안에 들여놓고 찬바람이 들어온다며 주인을 밖으로 내몰았다. 이제 천막엔 낙타만 남았다. 이 짧은 우화는 ‘작은 허용이 큰 패착을 낳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삶 전체를 잠식해버린다.

죄는 처음엔 아주 작다. 사람이 처음부터 큰 죄를 계획하지는 않는다. 대개는 아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죄를 합리화하고, 작은 틈을 허락하면서 서서히 죄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 낙타가 머리를 들이키는 것처럼 죄는 조용히,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다가온다. 그러나 그 작은 틈이 결국 내 삶 전체를 차지하고 만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마라”(히12:4). 죄와의 싸움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작은 유혹을 허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바로 낙타의 머리를 들이는 순간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앞다리, 몸통까지 들어온다. 작은 거짓말, 작은 음란, 작은 분노…, 사소해 보이지만 그 틈을 통해 죄가 마음에 자리 잡는다.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행동으로 굳어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작은 유혹부터 단호히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잠4:23) 하셨다.

우리 마음과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작은 죄를 거절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점검받을 때 우리 마음의 천막은 안전하다. 낙타가 처음부터 머리를 들이밀지 못하게 했다면 주인은 천막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죄의 작은 틈을 허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임택합 목사

:: 선교스캐치 ::

:: 빛이 되리라 ::

돈이란 애벌레는 감동을 먹고 산다



엑셀 선교사 부부

가르시아(Garcia) 집회를 마치고 몬테레이(Monterrey)로 이동하여 들어간 숙소 바로 옆에는 그랑 빠스톨(Grand Pastor)이라는 큰 식당이 있다. 염소 고기 전문이며 아침에는 뷔페식을 제공하는데, 숙소에 조식(朝食)코너가 없어 우리는 모두 이 식당에 와서 아침을 먹고, 집회를 마치고도 역시 이 식당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했다. 우리 일행과 아르헨티나(Argentina)에서 온 올리엘(Olier) 목사 부부, 오스칼(Oscar) 목사 가족, 엑셀(Héctor) 선교사 가족, 마리오(Mario) 목사 부부, 하비에르(Javier) 집사 등, 대략 20여 명이 모여 만찬을 하는데, 돌아가며 음식값을 준비하곤 했다. 하루는 엑셀 선교사 차례였던 모양이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목사님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계셨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엑셀 선교사가 일어나터

니 빈 접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초석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현금 시간을 갖겠다. 오늘 음식값을 위한 현금이니 감동이 오는 대로 현금하시라.” 엑셀 선교사의 기지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폭소가 터지는 가운데, 라구나(Laguna) 목사가 제일 먼저 100불을 접시에 올려놓았다. 올리엘 목사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접시에 열마를 올려놓았다. 목사님이 더 내려며 지갑에서 꺼낸 돈을 다 접시에 올려놓으려 하자 올리엘 목사가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안 된다고 도로 지갑에 집어넣는다. 이 장면에서도 한차례 폭소가 터졌다. 그러자 오스칼 목사는 ‘엑셀, 너부터 먼저 심어야지, 왜 우리에게만 내라고 하느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목사님은 계속 배꼽을 잡으며 박장대소하셨다. “야, 엑셀, 너 정말 지혜롭구나. 야, 이거 정말 탁월한 지혜다. 나도 한국 가서 가족 모임이나 장로를 모아놓고 써먹어야겠다. 하하하.” 이 지혜를 통해 200불이 모였는데, 목사님은 이 돈을 집회에 수고한 마리오 목사에게 주라 하셨다. 결국 식사비는 목사님이 다 계산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엑셀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다. 한국에

서도 기도하다가 엑셀 생각이 나면 혼자 웃곤 한다. 그런데 엑셀이 단지 개그맨처럼 잘 웃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다. 순간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돈이란 애벌레는 아이디어를 먹고 산다. 그런데 내가 오늘 크게 깨달은 게 있다. ‘돈이란 애벌레는 감동을 먹고 산다’는 것이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 주머니가 열리더라. 내가 오늘 엑셀 선교사의 지혜에 크게 감동하니 부족한 음식값을 내가 다 대겠다고 하지 않던가? 내가 감동하니 내 주머니가 열린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사건을 일기에 쓸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만약 엑셀이 자기 돈을 먼저 접시에 올려놓고 시작했더라면 모든 사람의 주머니가 열렸을 것이란 점이다. 즉 먼저 심었다면 오늘 음식값을 다 충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란 얘기다. 깊이 깨닫기 바란다.” ‘돈이란 애벌레는 감동을 먹고 산다.’ 정말 깊은 통찰이다. 엑셀 선교사의 기지도 놀라웠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 이러한 통찰을 끌어내는 목사님이 더 놀라웠다. 이 세상 만물이나 지극히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를 통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매일 깨닫는 지혜를 구하자.

한은택 목사

합니다. 죽고 나면 땅을 치며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세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뒤에 가게 될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며,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어여빠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갈 날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을 11월 초, 추계산상집회에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을 언급하셨습니다. 한나, 수로보니게 여인, 히스기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뱀 세 명을 벌리기 위해 강령하는 사람까지요. 이들은 모두 절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인 엘리에게 주정뱅이 취급을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에게 ‘당신은 곧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친구에게 빵 세 덩이를 간청했지만,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두드리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합니다. 자존심을 굽거나 부탁을 거절합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다수는 상처받고 돌아서거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거절하고 자존심을 건드려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며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꺾이지 않고 두드림 끝에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은 한번 꺾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안된다고, 죽는다고, 끝났다고 거절하는 말 앞에서 진짜 꺾이는지 아니면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을 뛰어넘는지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꼭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부정의 말을 할 때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나의 자존심을 건들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때 무엇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반드시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202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소희

우리, 감사를 습관화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릴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바쁜 일상에 치여 감사 자체를 잊을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자동으로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겠고, 그다음으로는 감사가 일상이 되도록 우리 삶의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를 습관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눈으로 자주 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해^^’와 같은 문구를 집안 곳곳에 출력해 붙여 놓으면, 오고 가면서 자연스레 보게 되고, 한 번 더 감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앞에 붙여 놓으면 음식을 꺼낼 때마다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방문이나 화장실 문 앞에 붙여 놓아도 자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습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 이야기만 나와도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틈만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30초, 1분만 투자하면 되고요. 저는 주로 PC 앞에 오래 있다 보니 엑셀로 감사 일기 양식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왼쪽엔 날짜, 오른쪽엔 감사 내용만 있고요. 감사할 일이 떠오를 때 잠깐 시간 내서 타이핑만 하면 됩니다. 파일은 항상 열어두고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니 나의 상황에 맞게 틀을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메모 앱에 간단히 기록해도 좋고요. 감사 일기를 쓰니 하루가 정리도 되고, 하나님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불만스러운 일이나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라고 감사 일기에 감사하며 적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의 씨앗을 심어 나가면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우리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도전해봐요.

장명훈 집사

서울성진 건축현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기도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